미션 임파서블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개역, 고린도전서 1:18~24]*

설교 제목을 미션 임파서블이라 정해놓고 설교 전에 비디오 한편을 꼭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은 못 봤습니다. 시간도 안 나고 어디 가서 빌려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신에 비디오 잘 보는 친구들에게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는 유성이 있어서 그대로 있으면 지구와 부딪쳐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 지 모른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미리 보내서 그 다가오는 유성이 지구에 가까이 오기 전에 핵 폭탄을 터뜨려서 쪼개버리는 영화가 있더라 싶어서 그런 얘기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런 얘기는 아니래요. 그 정도 되어야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인데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비교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 곧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준 이 일이 어떤 의미에서 글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명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면 보통 *KS*라고 불렀어요. *K*고등학교와 *S*대학을 마쳤다는 뜻이지요. 그런 사람이면 장래가 보장이 되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라고 불렸고 특별히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바리새인으로 장래가 아주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지금은 부나 권력이 세습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부는 거의 세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민주사회니 어쩌니 해도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아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 *2,000*년 전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부유한 환경, 좋은 환경은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해서 박멸시키기로 작정하고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앞장 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던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이 너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정말 멋진 설교를 거침없이 하니까 그들을 잡아서 취조하던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 하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였다고 하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바울이 청산유수같이 말을 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주 높은 고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왜 미쳤다고 하지요? 미친 이유가 뭐라고 하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제자들의 경우는 말을 잘 하니까 저것들은 본래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인데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열두 제자들과 아예 바탕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만큼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즉시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말로 굴복을 시켰던 바울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자동 소총을 들고 적을 향해서 막 쏘아대던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뒤에 있는 아군에게 쏘아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 서서 죽이러 다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획 돌아서더니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이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군에 가서 가끔 고문관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데, 사격 연습하러 총알 열 발을 넣어 가지고 사대에 올라가고 대기하는 병사들은 언덕 밑에 있었습니다. 사대에 올라가서 움푹하게 파진 구덩이에 들어가서 방아쇠를 당기는데 총알이 안 나가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빵빵거리는데 나는 방아쇠를 당겨도 안 나가길래 총을 들고 구덩이에서 나와서 뻥 돌아서니까, 뒤에 우리 중대가 있었는데요, 돌아서니까 고참 졸병 할 것 없이 땅바닥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아차 싶어서 참호 속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보니까 총알이 나가요. 오늘 죽었구나 싶더라구요. 내려가면 얼마나 터질는지 모르는데... 걱정하면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꾸중만 세게 듣고 그 일로 큰 탈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은 이런 상황에서 아군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긴 사건입니다. 돌아 서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군을 향하여 자동소총을 갈겨버린 셈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당해요. 모조리 굴복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열심히 외쳤던 한마디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무슨 도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 교회에도 도사가 더러 있죠. 낚시에 도가 튼 사람도 좀 괜찮아요. 요즘에는 영어에 도 텄다 하면 출세길이 훤하게 보이죠. 율동에 도가 트인 사람이 있고 찬양에 도가 트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유익합니까*!* 찬양의 도*(?)* 이것 괜찮습니다. 율동의 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우린 십자가라는 것을 워낙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라 해도 거리낌이 전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그 때에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나게 하는 것이요 불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표현을 바꾸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도대체 이게 납득할 수도 없고, 굉장히 기분 나쁜, 모욕스런 표현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납득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그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메시야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야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고 했거든요.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려놓은 다음에 메시야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메시야가 온다는 것은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그런 시절을 기다리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메시야는 그런 메시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야를 전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반복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느냐 하면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야의 개념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듣기는 듣는 데도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메시야에 대한 기대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뜻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적어도 부활한 이후까지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에 이사야 *53*장을 잘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구약성경을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 *3: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쉽게 알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

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메시야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릴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메시야가 고난을 받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란 말은 '네모난 동그라미'요, '기름에 튀긴 얼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다녔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고 모욕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정말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건 누구건 십자가에 달렸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야는 당연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거리끼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정말 저주를 받은 겁니까?

갈 *3: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분명히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 저주를 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기는 잘 알았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방법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모독으로 여겼던 것이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가보다 하고 반갑다고 인사를 했더니 "교회 안 다니는데요"라고 하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를 왜 달고 다니는지 아세요? 예쁘답니다.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십자가를 어느 분이 저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은 십자가입니다. 참 이뻐요. 예수님께서 달려서 고난을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참 예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소름끼쳐 하거나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시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입에 담기 싫은 험한 말이었습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분이 얼룩덜룩하게 뭐가 많이 묻은 새끼줄을 하나 구해가지고 꼭 새끼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고 칩시다. 새끼줄을 들고 와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형수를 사형시킬 때 목졸랐던 밧줄입니다. 여기 묻은 것이 사형수의 피입니다." 이러면 어쩌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건 사형수의 목을 졸랐던 오랏줄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꼭 화장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밥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비위 약한 사람은 밥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게 재미있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고 다니던 그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그 말보다 더 비위 상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거리끼고, 화나고, 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은 입만 열었다 하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접촉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헬라인입니다. 헬라인들은 지금 식으로 말하면 거의 철학자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아테네)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는 표현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철학자인 셈인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철학자 노릇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즈음 학교에서 철학을 안 가르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마는 철학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변적이어서 그냥 머리 속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것 중에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이 아닌 철학자들이 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뭡니까? 아직 해답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철학자들이 아주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이 문제의 답을 하나 냈습니다. '털이 없고 두 발로 똑바로 선 짐승' 그렇게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어떤 철학자가 집에 가서

닭을 산채로 털을 다 뽑았답니다. 그런 다음 그 회의장에 집어 던지며 하는 말이 "자, 이게 너희가 말하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철학자들이 모여 앉아서 그렇게 결론을 내었겠습니까? 철학적인 방법은 어렵습니다.

유명한 어느 철학교수님께서 "옛날부터 위대한 철학자들은 자기의 사상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꼼꼼하게 설명을 잘 안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꼼꼼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해 놓고 나니까 그 사람의 사상을 연구하고 먹고 사는 철학교수가 얼마나 많으냐?" 자기도 칸트를 연구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칸트를 연구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수천명이 넘는 답니다. 위대하다는 철학자들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더라면 철학교수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았으면 우린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 때 신론에 관한 철학책 두 권과 개혁주의 신론 한 권, 이 세 권을 읽어야 되는데 개혁주의 신론은 책이 굉장히 두껍지만 급하면 안 읽고도 보고서를 쓰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적은 책이니까요. 그런데 앞의 두 권, 신론에 대한 철학책인데 도저히 못 읽겠어요.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읽다가 보니까 아는 말도 나오긴 나오데요. 데카르트가 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느냐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눈 앞에 보이는 것도 못 믿겠고 세상이란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끝에 가 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러고 있는 자신은 부정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니까 나는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으로 내린 말이 그것 한마디입니다.

신론이라는 철학책이 이 모양이니 죽자고 머리 싸매고 다 읽어도 겨우 '신은 존재한다'는 한마디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그 신이 무엇을 했으며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신이 어떤 존재냐고 따지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성경을 보고 쓴 개혁주의 신론이라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머리만 잔뜩 아프지 끝까지 가보면 한마디밖에 없어요. '고로 신은 존재한다' 만약에 철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울런지 모릅니다.

헬라인들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게 안 먹혀 들어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풍성하게 알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원하는 그 분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원시인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신학을 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믿는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을 만한 무슨 증거를 주셨습니까? 아니 그 분이 근래 사신 분도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 분이 뭘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 분을 믿고 평생을 그 분을 사랑하며 그 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분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만해도 대단히 더운 날인데 하루종일 시달리고 저녁에 어디 시원한 데 퍼져 있는 게 좋지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다고 이리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뭐 본 게 있습니까? 들은 게 있습니까? 우리 효자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남의 말 함부로 듣고 왔다갔다 할 분들도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함께 사는 식구들의 이야기도 거짓말인지 진짜지 분간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도무지 듣기 싫은 말입니다. 헬라인들이 들을

때에도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잘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라고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미련한 짓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일이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머리 좋은 사람을 골라서 천국에 넣기로 했다면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인물 좋은 사람을 골라도 몇 분이야 가능하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정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런다고 되냐?' 싶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미련해 보이는 짓이라도 열심히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사용한 전도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면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전도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지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목소리만 높여 가지고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하고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보다 주로 큰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배웠던 그의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보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보지도 못한 성도들에게, 자기의 제자가 세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가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보다 조금 생각을 넓힙시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몰려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많은 나라들의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또 다른 민족에게 전해야 할 큰 책임을 한국교회가 지고 있습니다. 효자제일교회라는 교회 하나만 딱 이루어 놓고 여기서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좀 지난 후에라도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기회를 타서 복음을 들고 흩어져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꼭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고 귀하게 사용될 그 날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교회에 붙어 있을려고 합니까? 배울만큼 배워서 떠나십시오. 가정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기회를 찾으십시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삽시다. 배울 만큼 배우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정돈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약한 성도를 도우러 떠나기도 해야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소리소리 높여가면서 돌아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효자제일교회 성도들은 바쁩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제 눈에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 효자제일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아름다

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며칠 전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은 정말 우리가 살아 볼 만큼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신문보고 방송보면 도대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믿는 성도들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되 우리가 언젠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날을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외치고 다녔던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을 누가 듣고 싶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물론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늘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0:42)*'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행하는 물 한 그릇 이것도 예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행하는 전도라는 것이 꼭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하나 베푸는 것,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행하는 이 작은 일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 전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불신자가 교회 나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알게 모르게 누구를 통했건 한 사람이 백번 정도 복음의 찔림을 받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불려 나온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일에 한평생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